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뉴스레터 (2024년 12월호)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역사적 캠퍼스 매각 완료 및 부채 감소, 로스앤젤레스로 이전

로스앤젤레스, CA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ST)이 캘리포니아 클레어몬트에 위치한 16.4에이커 규모의 역사적인 캠퍼스를 매각하며, 138년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번 매각으로 770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해 학교 부채를 크게 줄였으며, CST는 사명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CST의 그랜트 하기야(Grant Hagiya) 총장은 “이번 사건은 10년에 걸친 법적·재정적 어려움의 종결이자 변화의 새로운 장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비록 우리가 기대했던 4천만~6천만 달러의 시장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가격으로 매각했지만, 부채를 해소하고 미래를 위한 전략적 재배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고 말했다.

이번 매각은 1957년에 체결된 클레어몬트 칼리지와의 제한적인 부동산 계약에서 비롯된 긴 법적 다툼 끝에 이루어졌다. 중재로 결정된 매각 가격은 시장 가치에 크게 못 미쳤지만, 이로 인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성장 가능성이 열렸다.

로스앤젤레스 웨스트우드로의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을 넘어 CST의 회복력과 비전을 보여준다. “우리는 사랑했던 클레어몬트 캠퍼스를 떠나지만, 변화와 성찰의 교육, 예배, 그리고 공동체의 추억을 간직했습니다. 이번 전환은 자원을 재배치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게 합니다”고 하기야 총장은 밝혔다.

미국 내에서도 가장 역동적인 문화적·학문적 중심지 중 하나인 로스앤젤레스에 자리 잡은 CST는 더 넓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역을 확대하려고 한다. 이미 현대적 도전에 대응하고 의미 있는 리더로 성장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새롭게 추진 중인 계획

- 글로벌 박사 과정 확장은 현재 타이완에서 진행하고 있는 Ph.D 철학박사 과정으로 글로벌 신학교육의 선두 주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 한국어 목회학 박사(D.Min.) 및 전문상담 박사 과정(DPC)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 새로운 목회학 박사과 영성학 박사 과정은 2025년 가을 출범 예정으로, 유연한 리더십, 창의적 목회 모델, 영성 지도를 중점으로 한다.
- 교육 중심의 문학 석사 과정과 인증 프로그램은 성직자와 비성직자를 대상으로 리더십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하기야 총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CST는 정의, 포용성, 학문적 탁월성에 대한 헌신을 변함없이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이끄는 과정이며, CST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으로 계속해서 자리잡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매각으로 확보된 자금은 전액 부채 상환에 사용되었으며, 재정적 부담을 덜어냈지만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진행 중인 혁신적인 파트너십과 전략적 계획을 통해 CST는 진보적 신학 교육의 미래를 열어가고, 로스앤젤레스와 그 너머에서 더 큰 영향을 발휘하려고 한다.

CST와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cst.edu]를 방문하면 된다.

1885년에 설립된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ST)은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13개 공식 신학대학 중 하나로, 다른 개신교 교단 및 다종교 간 파트너십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CST는 문학 석사(MA), 목회학 석사(M.Div), 목회학 박사(D.Min), 철학 박사(Ph.D) 과정 등 다양한 대학원 수준의 학위를 제공한다. 본교는 현재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해 있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전문상담 박사과정 입학설명회



☑ 일 시 : 12월 7일 (토) 오전 9시 [한국시간]

☑ 내 용 : 전문상담 박사과정(DPC)

☑ 입학설명회 줌 아이디 : 5772579397

☑ 문 의 : kef@cst.edu

한인학생회 종강모임

12월 15일 (일) 오후 5시

장 소 : Hodori Korean Cuisine [식당]
(7315 N Figueroa St Suite 102, LA, CA, 90041)

문 의 : 송영한 전도사(한인학생회 회장)
yeonghan.song@cst.edu



한국 신학대학 입학 인원 감소, 다양한 신학적 경험과 글로벌 리더십 함양을 기대하며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학교 소개 및 입학 설명회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유학 안내와 입학 설명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The General Board of Education, Korean Methodist Church	10월 21일 오후 1:30 분부(분부실 520호) 16층 12월 10일 오후 10시 30분 (사전 신청)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Th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Hanshin University	10월 22일 오후 1:40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10월 24일 오후 1:00
한남대학교 Hannam University	10월 24일 오후 4:30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ens University	10월 28일 오후 5:00
감리교신학대학교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10월 29일 오후 1:00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 연합신학대학원 Yonsei University	10월 30일 오후 3:00 원두도서관 B114호
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10월 31일 오후 2:00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입학 상담 및 문의 문의>
교육과 학생처(학생지원)로 문의하세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CST는 전화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02-950-0100) (문의: 02-950-0100) (문의: 02-950-0100)

미국 유학과 사역에 관심을 갖는 신학생들

최근 몇 년간 한국 신학대학들의 입학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미국 신학교로 유학과 미국에서의 사역을 선택하는 신학생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CST의 이경식 국제협력 부총장과 김남중 부학장이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국을 방문하며 만난 43명의 신학생들은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유학과 미국에서의 사역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원대학교, 한남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연합신학대학원, 장로회신학대학교 등 8개의 주요 협력기관에서 이경식 부총장, 김남중 부학장과 함께 직접 상담하였다.

입학 감소의 복합적 원인과 신학생들의 변화하는 요구

한국 신학대학들의 입학 인원 감소는 단순한 학문적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문화적 변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저출산과 대학 진학률의 감소에 따른 문제와 함께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의 사회적 문제로 인해 신학대학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 점도 한몫 했다. 더불어 많은 이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며 신학대학 진학을 기피하는 경향 또한 주요 감소 원인 중에 하나인데, 한국 교회의 80%가 미자립 교회라는 것을 고려할 때,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더 어려운 소명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교회 위상 변화와 맞물려 신학생들의 입학에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국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불교, 천주교 다음으로 하락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이처럼 변화하는 한국신학대학들과 사회 현상 속에서 미국 신학교로의 유학과 미국 교회에서의 사역에 관심을 갖는 신학생들이 있다. 직접 만난 43명의 학생들과의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관심사는 글로벌 리더십과 실제적인 다문화, 다인종 사역 경험에 대한 관심이었다. 이들은 한국 신학 교육과 교단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더 넓은 신학적 시각과 다문화, 다인종 사회에서의 사역 경험을 쌓고자 하는 열망을 보였다. 43명의 주요 관심사는 다음과 같다.



미국 신학교 유학의 주요 동기

첫째, 많은 학생들이 미국 신학교에서 다양한 신학적 관점과 학문적 심화를 경험하고자 했다. 한국의 신학 교육이 주로 소속 교단 신학과 교리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미국 신학교는 여러 교단과 전통을 아우르는 교육을 제공하며, 학생들은 이를 통해 보다 넓은 신학적 사고를 기를 수 있다. 둘째, 목회 사역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다인종 사회에서의 목회 경험을 쌓고, 실제적인 글로벌 목회 능력을 함양하고 싶어했다. 셋째, 책과 영상으로만 접했던 세계적인 수준의 신학자들과의 직접 교류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키우고, 변화하는 교회의 필요에 맞춰 미래 교회를 준비하고자 했다. 또한, 미국 내 한인 목회자에 대한 수요 증가와 여러가지 장점을 가진 한인 목회자의 필요성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분석과 전망 그리고 CST의 역할과 기대

이경식 국제협력 부총장과 김남중 부학장은 한국 신학생들의 미국 유학과 사역의 관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첫째, 한국 사회와 교회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필요해졌다는 점이다. 한국 교회가 더욱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글로벌한 시각과 깊이 있는 신학적 통찰을 가진 목회자의 필요성이 커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둘째, 글로벌 시대에 발맞춘 목회자와 신학자의 필요성이 증가했으며, 한국 신학 교육과 미국 신학 교육이 이러한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고자 상호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한국 신학생들이 미국 신학교 유학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깊은 열망의 표현이라는 점에 이 부총장과 김부학장은 공통된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신학생들의 관심과 갈망은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CST는 이러한 신학생들의 열정을 지지하며, 이들이 국제적인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한, CST는 한국 신학 교육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더욱 다양하고 실천적인 교육 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CST의 글로벌 협력은 한국 교회와 신학 교육의 미래에 중요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 총동문회, 새로운 도약을 위한 새 임원진 출범



최신성 목사



한국 총동문회 새 임원들

저는 2024년 클레어몬트 한국 동문회를 섬기게 된 최신성목사입니다. 먼저 CST한인 뉴스레터에 인사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동문회는 곽주환 베다니 교회 목사님과 임원들의 수고로 코로나 기간에도 동문회의 일들을 잘 해왔습니다.

이제 새롭게 총무 박동식목사 서기 이상수목사 회계 전성국목사와 함께 한국 동문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파악된 한국동문은 약 200명이 넘습니다. 그중에는 9명의 기독교 대한 감리회 감독님(전용재, 권오서, 권영화, 김성복, 남문희, 박장규, 우광성, 채성기, 최현규(무순)과 다양한 교단의 신학교에서 27명의 교수님(왕대일, 유태엽, 정태기, 여성훈, 권진숙, 김수천, 김진수, 김은혜, 문우일, 박경수, 백은미, 서영석, 김범식, 우진성, 김래용, 소기천, 양성진, 양인철, 오현선, 이요한, 이정철, 이주형, 이효주, 장왕식, 전병식, 정푸름, 조내연 (무순)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동문들이 한국교회의 주요 교회에서 다양한 목회를 하며 한국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동문회는 3가지 일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동문들의 친교 모임입니다. 가능하면 일년에 몇 번이라도 만남의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2025년 1월에 신년하례회를 꽃재교회에서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동문들의 경조사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모든 경조사에 임원들이 참석하기는 어렵지만 경조사 내용에 따라 화환과 조화라고 동문회 이름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CST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인학생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공부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인사를 마칩니다.



함께 했던 옛날, 같이 가는 새날



육성수 목사(M.A. '00, D.Min. '04)

설교 준비로 행복할 수 있나?

이제 정년 은퇴가 10년도 채 남지 않은 때, 지나온 목회의 여정을 생각하면 감사함이 넘칩니다. 그중에서도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에서 지냈던 7년의 기간(1997-2004)은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목회 사역에 대해 무언가 얘기해달라는 요청에 자격은 없지만 간단하게 설교에 관해 응답해 봅니다.

어린 나이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회의 현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해야 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나는 말주변도 없었고,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시골에서 개척교회 전도사로 일할 때, 10명도 안 되는 교인들 앞에서도 매주 서투른 원고라도 작성해야 강단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기가 어려워 설교원고를 꼼꼼히 작성했고, 그 습관은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클레어몬트에서 설교학을 공부할 때, 두 가지 일에 주로 집중했습니다. 하나는 학교에서 설교학을 공부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당시 한인마켓에 배포된 수많은 설교 테이프를 듣는 일이었습니다. 가끔 밤새워 일하는 곳에서 라디오방송으로 들리는 설교를 몇 시간씩 귀담아들었습니다. 설교학 공부를 통해서는 북미의 설교학운동, 흑인설교 그리고 한국인을 위한 설교상황화에 대해 알게 되었고,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작은 차이로 청중을 감동케 하거나 그렇지 못하는 설교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목회를 하면서도 설교는 여전히 부담스럽고 떨리는 작업이었지만, 몇 가지에 관심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스타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설교는 설득이기에, 성도들을 쉽게 설득할 수 있는 말의 스타일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귀납적으로 해야 하는지, 연역적으로 해야 하는지, 일대지로 해야 하는지, 삼대지로 해야 하는지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스타일로 설교할 것인지를 정하려면,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자의 스타일'을 살피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자의 스타일을 자기도 모르게 따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는 '성경본문의 묵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일단 설교 스타일을 정하면, 본문에 대한 묵상에 관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묵상은 본문을 가지고 무엇을 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순서였습니다. 가장 먼저 '본문이 말하는 의미'(What the text meant?, exegesis)를 살피고, 그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What the text means?, exposition)를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찾으려면, 묵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묵상으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해석의 결과를 얻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출한 영적 통찰력을 가진 소수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설교자는 비슷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묵상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헌신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주로 월요일부터 설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꿈에서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셋째는 '청중에게 이 메시지가 필요한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설교는 설교자가 멋진 설교를 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설교는 청중들로부터 '설교자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칭찬을 듣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설교에서는 청중이 주인공이기에 그들이 듣고, 그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그들이 삶을 바꾸자고 결심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이 메시지가 어느 성도에게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회개'가 필요한 성도가 있고, '거룩함'이 필요한 성도가 있고, '치유'가 필요한 성도가 있기에 성도의 삶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주 주보의 한 면을 빌려 '설교를 준비면서'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이 글에서 왜 설교를 준비했는지에 대해 말하거나 설교의 주제와 관련된 개인적인 소회를 밝혔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설교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도 청중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성도들은 이 글을 통해 설교자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그날 주실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설교의 준비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준비를 통해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transitional question)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여행을 매주 했습니다. 그 질문은 설교자도 궁금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설교 준비로 답을 찾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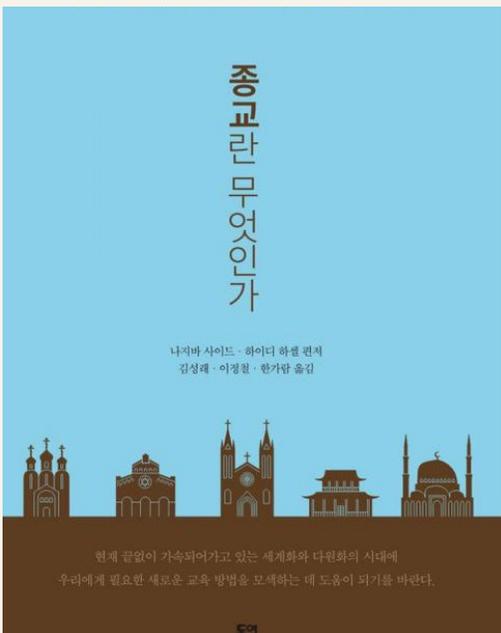
<책 출간 소식>



이정철(국민대학교 교수, Ph.D. '17)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인 뉴스 레터를 통해 저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저는 돌아오는 2025년 봄 학기에 CST에서 방문학자로 한 학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다시 모교로 돌아와 연구의 시간을 가질 것을 생각하니 무척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개인 연구 뿐만 아니라 “Korean Christianity and Spirituality”이라는 과목을 또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탈종교화 현상’과 ‘중층신앙’ 등 몇 가지 특징적인 한국의 문제들에 대해 연구 한 바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러한 내용들을 미국의 학생들과 나눌 수 있게 되니 그것 또한 매우 큰 기대가 됩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또 한 가지 소식은 다른 두 동료들과 함께 번역하여 출판하게 된 책에 관한 것입니다. 원서명은 “Critical Perspectives on Interreligious Education”(Brill, 2020)이고, 한국에서는 “종교란 무엇인가: 함께-형성을 위한 종교 간 교육”(동연, 2024)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이 번역서는 저의 코스웍 지도교수였던 나지바 사이드 (Najeeba Syeed) 교수님과 과거 하트포드신학대학원 총장이셨던 하이디 하셀(Heidi Hadsell) 총장님이 함께 편집한 책입니다. 번역에는 부족함이 많지만 이 책을 통해 CST가 그간 과감하게 시도해 왔던 “종교 간 교육”(interreligious education)을 한국에 본격적으로 소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는 CST를 비롯한 미국의 다양한 신학교육기관에서 이뤄진 ‘종교 간 교육’의 사례와 해석들이 담겨 있는데, 한국의 학자들과 실천가들이 미국의 맥락과 현장을 매우 깊숙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책을 통해 CST의 교수였던 모니카 콜만(Monica Coleman) 교수님이나 박사과정 동료였던 크리스틴 홍(Christine Hong, 현 콜럼비아 신학대학원 교수)의 글들을 소개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종교 간 교육’ 트랙으로 졸업한 첫 번째(이자 어쩌면 마지막?) 한국인 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연구해온 분야를 한국에 소개할 수 있다는 점은 개인적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다종교 상황을 고려한 종교교육이 필요하다는 논의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 CST를 비롯한 여러 신학교육기관의 사례들을 소개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그 대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여 떠난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CST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나름대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ST의 신학과 비전이 한국을 포함한 세계의 많은 곳에 여전히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의 영감과 지혜의 원천으로 잠시나마 다시 돌아가 에너지를 충전하고, 그곳의 학생 및 학자들과 교류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따뜻하게 환대해준 모교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여러모로 지원해주신 이경식 대외협력 부총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모든 동문들께도 안부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문 겸임 임용 및 강의 소식>



송민환 목사 (Ph.D. '24)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실천신학 철학박사(Ph.D. in Practical Theology) 과정을 졸업한 송민환 목사입니다. 2025년 봄학기에 CST에서 겸임교수로서 Chaplaincy in Context라는 과목을 가르칠 예정입니다. 이 과목은 장래에 채플린을 꿈꾸는 학생들이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필수 과목입니다. 병원, 군대, 교도소, 호스피스, 대학 캠퍼스 등 다양한 돌봄 현장에서 종교적/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여러 직역과 협력하며, 돌봄 대상자들에게 고유하면서도 특수화된 목회/영성 돌봄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덕목과 능력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수업에서는 각 현장의 특수성과 요구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학생들이 미래 채플린으로서의 사역에 대해 구체적인 비전을 세우며, 자신의 전문성과 영성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이론과 실천 방법을 탐구하도록 이끌고자 합니다. 이 수업을 통해 많은 학생과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문 사역 소식>

엘피스 패밀리, 여성 지도자와 사모들을 위한 사역 계속해서 이어가다 - CST 동문 박운송 목사, 엘피스 사역원의 비전과 사역 소개 -



박운송 목사(D.Min. '18)

안녕하세요, 박운송 목사입니다. 저는 엘피스 패밀리의 대표로서, 여성 지도자, 특히 목회자의 아내들을 섬기며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엘피스 사역원은 2016년 6월, LA 복음교회에서 오픈예배를 드리며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LA 복음교회 2층에 사무실을 두고 사역을 이어가고 있으며, 여성 지도자와 사모님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임원들과 큐티와 기도 모임을 진행하고, 매월 주일 예배 후에는 대면 모임을 통해 사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함께 사역하는 임원들은 9명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이 사역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 아내를 위한 힐링 캠프는 지난 4년간 계속해서 열리고 있으며, 캠프의 핵심 목표는 사모님들의 정체성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매월 첫 번째 금요일, 모든 사모님이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기도 모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모님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서로 위로받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제4차 힐링캠프는 10월 28일(월)과 29일(화), 메이터 돌로로사 수양관에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모'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모님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정서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된 이 캠프는 참석자들에게 깊은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날, 개회 예배는 김은주 사모의 기도로 시작되었고, 이어서 한기형 목사(하늘문교회 담임)가 사무엘상 1:17-18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기형 목사님은 "여기 모인 여러분은 어머니이자 목사의 아내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매우 귀하며, 그 기도를 통해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라고 강조하였고, 예배 후 참석자들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후에는 변명혜 교수(ITS)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모 1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변 교수는 목회자 사모로서의 경험을 나누며, 사모들이 겪는 정서적 어려움과 그 해결책에 대해 진지하게 다뤘습니다. "사역하는 데 있어 누구를 위해 하는지가 분명해야 한다"라며, "사역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강조했습니다. 강의 후에는 한진주 사모의 캘리그라피 강의와 저녁 강의 '분노 관리'를 통해 사모님들이 겪는 감정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나누었습니다. 이후 참석자들은 기도회를 통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 날, 순례길 체험을 통해 참석자들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고, 변명혜 교수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모 2강'을 통해 사모님들이 겪는 감정적 어려움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한 유익한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신혜원 사모는 하브루타 강의를 통해 참석자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함께 토론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캠프의 마지막 시간에는 참석자들이 각자의 은혜와 도전의 순간들을 나누는 간증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도전의 순간들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폐회 예배를 통해 캠프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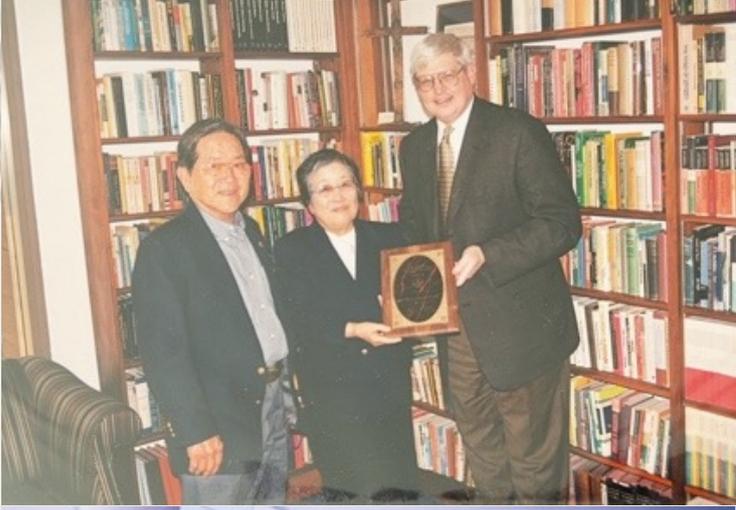
엘피스 사역원은 앞으로도 사모님들이 영적, 정서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정기적인 기도 모임을 통해 모든 사모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참석자들에게 큰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출처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stian Press 11.02.2024 박준호 기자



한인 영구 장학금(Korean Endowment Fund)을 소개합니다.

이번 달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뉴스레터에서는 박대희 목사님의 삶과 헌신을 소개합니다. 박대희 목사님은 한국과 미국에서 평생 목회와 봉사에 헌신하였으며, 특히 차세대 목회자 양성을 위한 한인 영구 장학금(Korean Endowment Fund) 모금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한결같은 사역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으며, 설교집 *한결같이, 마음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남겼습니다. 박대희 목사님의 헌신은 지금도 그의 아내 박성숙 사모님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의 목회자 박대희 목사 (1924-2017)와 박성숙 사모



박대희牧사는 서울 감리교신학교를 1948년 졸업하였고 서울 국제대학을 1958년에 졸업하였다. 경기도 고양시 신도감리교회를 창립하여 목회(1948-1959)하였다. 지교회로 고양시 벽제감리교회를 1953년 창립, 1956년부터 1959년까지 고양군 오금리감리교회와 함께 두 교회의 창립 목사로서 겸임하였다.

미 연합감리교 십자군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워싱턴 D.C. 웨슬리 신학 대학원에 1959년에 입학하여 1962년 졸업하였다.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으나, 그 계획이 변경되어 하와이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목사로서 1962년부터 1981년까지 시무하였다. 1981년부터 1990년까지 LA(구 로벗슨)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1990년 California-Pacific Annual Conference에서 은퇴하였다.

은퇴한 후에도 목회와 봉사를 한결같이 하여 1993년 덴버 그리스도중앙연합감리교회를 창립하여, 새로운 후임 담임목사를 세우고, 하와이로 돌아가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원로목사로 섬겼다. LA로 다시 이전하여 LA연합감리교회 원로목사로 섬기던 중 2017년 소천하였다.

은퇴 후 박대희 목사는 장흥식 장로와 함께 CST의 한인 장학금(Korean Endowment Fund) 모금을 시작하였다. KEF 모금 운동은 박대희 목사의 소천 후에도 지속되어 2024년 기준 2백만 불 이상이 되었다. 그는 차세대 목회자 양성을 위해 모범을 보였다. 박대희 목사의 영향을 받아 목회자가 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 조인균, 이경식, 신영각, 김종일, 이창민 목사 등을 포함한다.

박대희 목사는 설교집 세편을 남겼다 (“한결같이,” “마음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박대희 목사는 박성숙 사모와 1950년 결혼하였다. 박성숙 사모는 그의 영원한 동반자로서 미국과 한국의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며 많은 이들에게 “부모”의 역할을 감당했다. 박대희 목사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지만, 그의 한결같은 봉사와 섬김의 사역은 박성숙 사모를 통해 지속되고 있다. 박성숙 사모는 2024년 7월 현재 95세의 연령에도 철저히 정확한 기억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CST의 한인 장학금을 위해 아직도 십일조 헌금을 하고 있다.



2025년 기부 현황

차세대 영적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귀한 도움의 손길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1일 기준-

이병준 장로
이한슬 박사와 이레이첼 박사
LA 연합감리교회
이혜자 권사
박성숙 사모
황인조 장로
이진우 회장
서혜주 권사
강신욱 목사
보라매열린교회

* 성함은 기부일자 순입니다

기부총액(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1일 기준): **\$260,545**

- KEF 잔액(1990.03. - 2024.12.):	\$2,391,654
- KLS 잔액(2018.10. - 2024.12.):	\$668,315
- General Fund 합계 (2024.03. - 2024.12.):	\$10,000

* 행정 업무로 인해 누락된 기부금 반영은 차월에 반영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